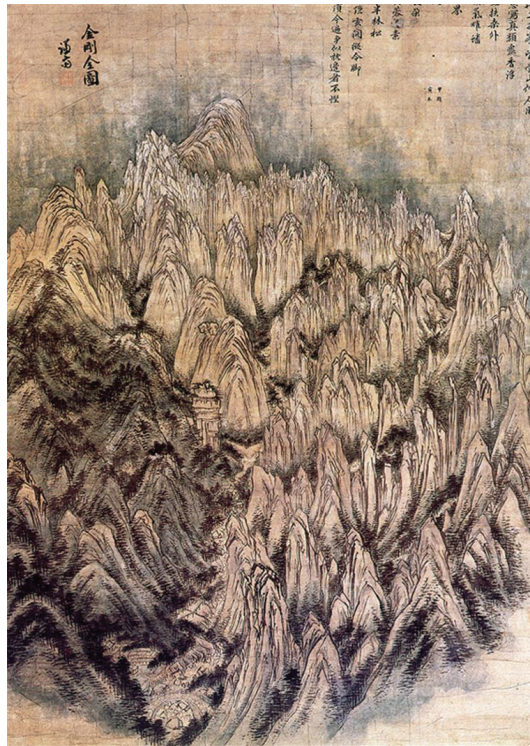


조선 후기 회화(繪畵)의 백미 풍속화



조선 후기 회화는 눈부신 발전의 거듭이었다. 겸재(謙齋) 정선(鄭愼)¹⁾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 산천을 골격(骨格)으로 하는 독자적인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²⁾를 창시했다. 대표적인 작품이 국보로 지정된 ‘금강전도(金剛全圖)’³⁾다. 오른쪽에는 기암절벽을 힘있게 그렸고, 왼쪽에는 점을 찍어 휴산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대조는 남성과 여성, 양과 음의 조화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다. 부감법⁴⁾으로 그려 금강산을 한 폭에 담고자 했던 겸재의 기상(氣象)이 서려 있는 명작이다.



[금강전도] 정선, 국보, 1676~1734년, 조선 시대,
국립중앙박물관(故 이건희 기증)



신희곤
신도중학교
교사

- 1) 정선(鄭愼, 1676년~1759년)은 조선의 화가, 문신이다. 본관은 광주, 자는 원백(元伯), 호는 겸재(謙齋)·겸초(兼艸)·난곡(蘭谷)이다. [1] 김창집(金昌集)의 천거로 도화서의 화원이 되어 관직에 나갔다.(출처: 위키백과)
- 2) 김덕수(2020). 중학교 역사 2_진경산수화, 풍속화, 160쪽. 천재교육.
- 3) 박근철(2020). 중학교 역사 2_예술의 부흥(금강전도, 인왕제색도, 월하정인), 160쪽. 지학사.
- 4) 부감법: 위에서 밑으로 내려 본 시각상(視覺象)을 표현한 회화 기법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서 고(故) 이견희 회장의 기증 유물 중 단연 주목을 받았던 작품도 겸재 정선의 작품이었다. 바로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⁵⁾.

수십 년 단짝 친구였던 이병연⁶⁾이 병마에 시달릴 때 비가 온 뒤 구름이 걷히듯 말끔히 쾌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이었다. 그러나 '인왕제색도가' 완성되고 일주일 뒤쯤 벼의 부고(訃告)가 날아들었다. 비록 바람과는 달리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운명하였지만, 벼를 생각하는 겸재의 마음은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인왕제색도] 정선, 국보, 1751년, 조선 영조 27년(1751년), 국립중앙박물관(故 이견희 기증)

필자는 이 작품을 볼 때면 피카소의 '게르니카'⁷⁾ 작품이 떠오르곤 한다. 동양과 서양을 구분 지을 것도 없이 흑백이 던져주는 그 묵직함 때문일 것이다. 요란스럽게 설명하지 않아도 흑과 백의 강렬한 대비 속에 함의(含意)된 사연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5) 비 내린 뒤의 인왕산을 그린 산수화이다. 대한민국의 국보(제216호였으나, 현재는 순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로 개인 소장이었으나,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

6) 이병연은 겸재 정선의 벗이자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후원했던 일명 파트런([프랑스어]patron)이었다.

7) '게르니카(Guernica)'는 스페인 내전 당시 독일군이 스페인 게르니카 지역 일대를 1937년 4월 26일 24대의 비행기로 폭격하는 참상을 신문으로 보고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다. 독일군의 폭격으로 250~1600명이 사망했다.



[게르니카] 피카소, 1937, 349.3×776.6 cm,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

비견(比肩)하여 조선 후기 회화의 백미는 풍속화에서 찾을 수 있다. 풍속화 하면 그 이름도 유명한 김홍도(金弘道, 1745~1806년?)⁸⁾와 신윤복(申潤福, 1758~?)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십여 년 전 '바람의 화원'이라는 드라마⁹⁾가 방영된 적이 있다. 흥미롭게도 여성¹⁰⁾을 잘 표현하였던 신윤복을 오마주¹¹⁾하는 방법으로 그를 여성으로까지 분(扮)하여 장안에 화제가 되었다. 물론 신윤복은 당시 도화서(圖畫署) 화원이었던 일재(逸齋) 신한평(申漢枰, 1726~1809)의 아들¹²⁾이었다. 그런데도 이런 가설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신윤복이 동성(同性)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렇게까지 여성에 대한 이해와 섬세한 필치로 묘사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놀라움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당대 최고였다는 것의 방증(傍證)이자, 그것을 '미인도'가 유감없이 증명해 주었다.

그림 속 주인공은 한양의 풍류 생활을 주도했던 어느 아리따운 여인의 초상화다. 복식(服飾)을 보면 사대부가의 여인이 아닌 기녀(妓女)로 보인다.

8) 김홍도는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로 본관은 김해, 자는 사능(士能), 호는 단원이다.

9) 2008년 SBS 드라마(주연 문근영) <https://programs.sbs.co.kr/drama/hwawon/about/53922>

10) 주로 기녀들이 대상이었다. 춘화를 많이 그린 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1) 오마주의 뜻: homage. 프랑스어로 '존경'을 의미한다.

12) 본관은 고령 신씨이다. 세종대(代) 문충공 신숙주 공의 후손이었으나 방계 출신으로 갈라지면서 의(醫), 역(譯), 율(律) 등에 종사해 왔다.

가체(加髻)를 쓰고 젓가슴이 살짝 드러날 만큼 기장이 짧으며 소매통마저 팔뚝에 밀착된 저고리가 그것을 말해준다. 게다가 과장될 만큼 부풀어 오른 치마폭은 관능미(官能美)를 한껏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쪽빛 치마 밑으로 살포시 드러난 하얀 버선발과 겨드랑이에서 흘러내린 두 가닥 주홍색 허리띠 끈은 옷고름과 함께 옷매무시를 아직 가다듬지 못한 모습으로 대장부를 뇌쇄(惱殺)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저고리 깃과 겨드랑이는 옷고름과 같은 자줏빛으로 회장(回裝)¹³⁾을 대고 끝동은 치마와 같은 쪽빛으로 회장을 대어 삼회장으로 멋을 부린 것도 세련미를 더하고 있다. 두 손에는 묵직한 마노(瑪瑙) 노리개가 들려 있는데 마치 희롱하듯 만지작거리는 모습에서 고혹적인 작태(作態)마저 읽힌다. 여린 듯 앳된 얼굴, 열망을 가득 담은 채 붉게 부푼 입술은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터질 듯한 물오른 앵두를 연상시킨다. 말을 할 듯 머뭇거리며 맑고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얼굴에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아무래도 이 그림을 그린 혜원(蕙園)¹⁴⁾의 심사(心事)가 그대로 투영(投影)된 까닭일 것이다.

왼쪽 위 화제(畫題)를 보면 혜원이 그림 속 여인을 연모(戀慕)했던 것은 아닌지 짐작하게 한다.



[미인도] 신윤복, 보물, 114.2×45.7cm,
간송미술문화재단

13) 회장: 여자의 저고리 깃·끝동·겨드랑이·고름 등에 빛깔 있는 형값을 덧대 꾸임. 또는 그 꾸임새.

14) 혜원은 신윤복의 호로 중국 당나라의 시인 이하(李賀, 791~817)가 지은 야음조숙곡(夜飲朝宿曲: 밤새 마시고 아침이 되어서야 자는 노래)에 나오는 '혜초정원(蕙草庭園)'에서 따 왔다.(출처:고령신씨안협공파종중회)

‘盤薄胸中萬化春 筆端能與物傳神’(반박흉중만화춘 필단능여물전신)

‘조그만 가슴에 서리고 서려 있는 여인의 봄별 같은 정을 붓끝으로 어떻게 그 마음마저 고스란히 옮겨 놓았느냐’

머릿결을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표현한 것만 보아도 그림 속 주인공에 대한 혜원의 애착심마저 느껴진다.

신윤복의 그림 세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작품 속에 그대로 투사(投射)되어있는 긴장감이다. 신윤복은 ‘혜원전신첩(蕙園傳神帖)’¹⁵⁾을 통해 많은 역작을 남겼다. 그중 ‘단오풍정(端午風情)’¹⁶⁾은 단원(檀園) 김홍도의 ‘빨래터’와 여러 면에서 비교되곤 한다.

통상 전통 회화는 대각선을 축으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단원의 ‘빨래터’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바위 뒤에 숨어 빨래하는 여인들을 훑쳐보고 있는 선비다. 부채로 얼굴을 가린 것을 보면 자신의 행동이 떴떴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비의 시선을 따라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다 시선이 빨래에 열중하고 있는 아낙네들에게서 멈춘다. 고된 일이지만 표정만은 밝아 보인다. 스스럼없이 허벅지를 드러내도 신경 쓸 일 없는 금남(禁男)의 영역에서 정겨운 이웃과 함께라서 그럴 것이다. 때문에 선비의 호기심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빨래터] 김홍도, 보물, 28.0×23.0cm, 국립중앙박물관

15) 국보 135호(현재는 순번제를 사용하지 않음)로 조선 시대 여인 초상화의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미인도’ 등을 남겼다.

16) 김덕수(2020). 중학교 역사 교과서 2, 160쪽, 단오풍정. 천재교육.
이병인(2020). 중학교 역사 2, 168~169쪽, 단오풍정. 비상.



[단오통정] 신윤복, 지본 담채, 28.2×35.6cm, 간송미술문화재단

반면 혜원의 ‘단오통정’은 사내들의 비행(非行)을 교묘하게 감춰 은밀함을 더했다. 조선 시대 누드화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단원에 비해 등장인물들도 파격적인 모습이다.

우선 오른쪽 위에서 유일하게 노란 저고리에 붉은색 치마를 입고 그네를 타고 있는 여인이 눈에 띈다. 그 여인의 시선을 따라 아래로 이동하면 목욕하고 있는 4명의 여인에게 시선이 멈춘다. 그 여인들을 각기 다른 행동으로 묘사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더했다. 팔을 씻고 있는 여인은 앞모습, 머리를 손질하는 여인은 뒷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얼굴을 씻고 있는 여인은 옆모습이다. 마치 고대 그리스 삼미신(三美神)이 연상될 만큼 혜원의 그림에는 여성미가 가득 차 있다. 놀라운 것은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다. 치마를 걸쳤으나 엉덩이는 물론 알몸이 훤히 다 드러나 보인다. 농묵(濃墨)으로 점을 찍어 젓꼭지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한 혜원은 춘화(春畵)¹⁷⁾에도 일가견이 있었음을 과시하고 싶었

17) 춘화(春畵): 남녀 간의 성희 장면을 나타낸 그림이나 사진

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우리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옛된 소년들이다. 막 사춘기에 들어선 모습 같기도 한데, 까까머리를 하고 있어 동자승(童子僧)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 왜 하필 스님일까? 이성(異姓)에 대해 가장 초연(超然)해야 할 사람들이 철없이 이 모든 광경을 바위 틈새로 훑쳐보고 있다. 그것도 시선이 잘 가지 않는 왼쪽 위 으스스한 곳에 숨어서 말이다. 사내들 위쪽의 나뭇잎을 농묵(濃墨)으로 어둡게 처리한 것도 그런 연유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목욕하는 여인들도 나무 그늘을 등지고 보는 이의 눈길이 가장 늦게 닿는 곳에 있다. 그네 뛰는 여인의 화려한 옷차림에 가려 더욱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작품을 X자 구도로 보았을 때, 오른쪽 아래 붓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여인 1명, 왼쪽 위 동자승 2명, 오른쪽 위 그네 타는 여인을 포함하여 3명 그리고 왼쪽 아래 목욕하는 여인 4명으로 사람 수가 차례로 배치돼 있다는 점이다. 균형감은 물론 동시에 변화무쌍한 느낌을 한꺼번에 주고자 했던 의도로 보인다.

사족(蛇足)으로 사람 수와 관련된 흥미로운 구도는 단원의 ‘씨름도’¹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위 수학에서 말하는 마방진(魔方陣)¹⁹⁾을 응용했다.

그림 속 가운데 두 사람을 기준으로 양쪽 대각선으로 배치된 인물 수를 모두 합하면 12명씩 같다. 조선 후기 북학의 영향으로 청나라를 통해 외국 문물이 조선



[씨름도] 김홍도, 종이에 수묵담채, 27×22.7cm
단원풍속화첩에 수록, 국립중앙박물관

18) 노대환(2020). 중학교 역사 2, 161쪽, 씨름도, 단오풍정, 인왕제색도. 동아출판.
이병인(2020). 중학교 역사 2, 168~169쪽, 씨름도, 단오풍정. 비상.

19) 마방진(魔方陣): 자연수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가로·세로·대각선(對角線)으로 합친 수가 모두 같아지게 만든 것

에도 많이 유입되었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 영향으로 김홍도가 마방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정조대왕(正祖大王) 연간에 그려진 그림 중에는 수치와 도르래를 이용한 과학적 장치가 표현된 그림²⁰⁾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김홍도가 마방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씨름도’를 무의식적으로 그렸다면 오히려 그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라 해석해도 좋겠다.

이 그림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이 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한 사내의 오른손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반대로 그려진 탓이다. 천재 화가 김홍도가 실수할 리 만무하고, 그렇다면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까? 씨름에서 승자는 분명 뒷모습을 보이는 사내였을 것이다. 그리고 들려진 사내는 분명 우리가 주목한 사내 쪽으로 내동댕이쳐졌을 것이다. 땅을 짚은 손이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복선(伏線) 같기도 하다. 단원의 풍속화에서 발견하게 되는 해학미(諧謔美)는 바로 이러한 익살스러운 표현 덕분이었다. 한편 왼쪽 위 무릎에 손을 감고 있는 사내를 보자. 갓과 신을 벗어 가지런히 둔 것을 보니 다음 차례인 듯하다. 상기된 얼굴에는 긴장감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다시 신윤복으로 돌아가 ‘월하정인(月下情人)²¹⁾’을 감상해 보자. 화제(畫題) 내용에 비춰보면 둘이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호젓한 곳에서 은밀히 만나고 있다. ‘달 아래 연인’이라는 제목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애뜻함마저 묻어나고 있다.



[월하정인] 신윤복, 국보, 18세기, 간송미술관

‘月沈沈 夜三更 兩人心事 兩人知’(월침침 야삼경 양인심사 양인지)

‘달은 기울어 삼경인데, 두 사람의 마음이야 그들만이 알겠지’

20) 심사정(1707~1769)의 ‘축잔도권’이나 이인문(1745~1824)의 ‘강산무진도’에는 당시에는 신문물이었던 도르래가 그려져 있다.

21) 박근칠(2020). 중학교 역사 2, 160쪽, 월하정인. 출: 지학사.

두 사람의 발 모양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亂舞)하지만, 통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여인으로 인해 남성의 마음이 애끓고, 끝내 아쉬움을 간직한 채 헤어 지려는 찰나를 포착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화제처럼 두 사람만이 알아서 할 일이니, 우리가 왈가왈부(曰可曰否)할 일이 아니다.

대신 남녀 주인공들의 사연은 차치하고 그림 속 달의 모습에 국한(局限)하여 생각해 보자. 상현(上弦)²²⁾달인지 하현달인지 눈썹 모양을 하고 있다. 몇 해 전 수능 모의고사 과학 탐구 영역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다.

‘삼경이면 23시에서 새벽 1시 사이인데, 이때 달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제시된 선택지 중 정답은 ‘우리나라에서 달이 질 때 이런 모양으로는 보일 수 없다.’

이 문제를 접한 충남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태형 겸임교수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정말 그럴까? 혹 신윤복이 이렇게 생긴 달을 직접 보고 그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결국 호기심은 조선 시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모두 뒤지게 했다. 월식(月食)에 대한 기록을 살살이 찾아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히 하루, 1793년 8월 21일. 통상 개기월식(皆既月蝕)²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지지만, 부분 월식 때는 밑에서부터 달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확인²⁴⁾하였다. 1793년이던 신윤복이 활동했던 시기와도 겹치기 때문에 신빙성을 더해 주었다.

물론 그날이라고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단지 그림 속 이미지를 가설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했던 어느 과학자의 노력은 미술 작품이 갖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 고증자료(考證史料)로서의 중요성도 일깨워 주었다.

이제 미술 비평가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²⁵⁾의 말²⁶⁾을 인용하면서 글

22) 상현(上弦)달 : 매달 음력 7-8일경에 나타나는 달의 상태. 신월(新月)과 만월의 중간 되는 반달로, 둥근 모양이 아래로 향함.↔하현.

23) 개기 월식(皆既月蝕) : 월식에서, 달 전체가 지구의 본(本) 그림자 속에 들어가 달이 해의 빛을 완전히 받지 못하게 되는 현상.↔부분 월식

24) 이태형 교수 한겨레 [신윤복 그림 ‘월하정인’ 속 데이트 시각은?] 등록: 2011-08-16 15:36 수정: 2011-08-16 15:47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491944.html

25) 존 러스킨: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중요한 예술 평론가이자 후원자, 소묘 화가, 수채화가, 저명한 사회운동가이자 독자이다. 그는 지질학부터 건축, 신화, 조류학, 문학, 교육, 원예와 경제학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의 글을 썼다.

26) Great nations write their autobiographies in three manuscripts—the book of their deeds, the book of their words and the book of their art.

관련 내용(양정무, 위대한 국가는 미술로 자서전을 쓴다[동아시아론/양정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5-24 14:21: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521/107054718/1>

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위대한 국가들은 그들의 자서전을 세 권의 원고로 쓴다. 즉, 행적, 말, 그리고 예술이다. 어느 것도 나머지 둘을 함께 읽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예술(미술)이다.” 이 말의 취지는 이미 지나간 행적은 재현(再現)이 불가하고 말과 기록은 왜곡될 수 있지만, 미술은 언제나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조선 후기 풍속화의 저력(底力)처럼 말이다.



참고 문헌

• 교과서

김덕수 외(2020). 중학교 역사 2, 160. 천재교육.

– 조선 후기 회화는 어떻게 발달하였을까?_진경산수화(금강전도/인왕제색도)/풍속화(씨름도/단오풍정)

한철호 외(2012). 중학교 역사 1, 194. 좋은책신사고.

– 우리의 멋을 추구하다_정선의 인왕제색도/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

박근칠(2020). 중학교 역사 2, 160. 지학사.

– 예술의 부흥_전성의 금강전도, 인왕제색도/신윤복의 월하정인

노대환(2020). 중학교 역사 2, 161. 동아출판.

– 독자적인 화풍의 유행_씨름도, 단오풍정, 인왕제색도

이병인(2020). 중학교 역사 2, 161. 비상.

– 예술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다_금강전도, 인왕제색도

이병인(2020). 중학교 역사 2, 168-169. 비상.

– 풍속화와 민화_단오풍정, 씨름도

• 단행본

문화재청(2022 03 vol. 208). 문화재 사랑, 3-5. 문화재청.

리움(2011). 화원(조선화원대전도록_이인문 강산무진도), 114-121. 삼성미술관리움.

• 이미지 출처(원고 내 게시 순)

– 정선 [금강전도]

<https://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1611691&ccbaKdcd=11&ccbaAsno=02170000&ccbaCtcd=11>

– 정선 [인왕제색도]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84%A0_%ED%95%84_%EC%9D%B8%EC%99%95%EC%A0%9C%EC%83%89%EB%8F%84#/media/%ED%8C%8C%EC%9D%BC:Inwangjesaekdo.jpg

- 피카소 [게르니카]

[https://ko.wikipedia.org/wiki/%EA%B2%8C%EB%A5%B4%EB%8B%88%EC%B9%B4_\(%EA%B7%B8%EB%A6%BC\)#/media/%ED%8C%8C%EC%9D%BC:%ED%94%BC%EC%B9%B4%EC%86%8C_%EA%B2%8C%EB%A5%B4%EB%8B%88%EC%B9%B4.jpg](https://ko.wikipedia.org/wiki/%EA%B2%8C%EB%A5%B4%EB%8B%88%EC%B9%B4_(%EA%B7%B8%EB%A6%BC)#/media/%ED%8C%8C%EC%9D%BC:%ED%94%BC%EC%B9%B4%EC%86%8C_%EA%B2%8C%EB%A5%B4%EB%8B%88%EC%B9%B4.jpg)

- 신윤복 [미인도]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s_kdcd=&s_ctcd=11&ccbaKdcd=12&ccbaAsno=19730000&ccbaCtcd=11&ccbaCpno=1121119730000&ccbaLcto=16&culPageNo=6&header=region&pageNo=1_1_3_0&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RegionList.do&assetname=

- 김홍도 [빨래터]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treasure/view?relicId=539>

- 신윤복 [단오풍경]

<http://kansong.org/collection/danopungjeong/>

- 김홍도 [씨름도]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treasure/view?relicId=551>

- 신윤복 [월하정인]

<https://www.koya-culture.com/news/article.html?no=130599>

필자 소개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였고,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박물관·미술관교육을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9개정 교육과정 미술 교과서(동아출판) 연구진으로 참여하였고, 현재 신도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중이다.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체 교과서 - 점자와 확대 교과서 그리고 음성자료 -



2021년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 시각장애 학생은 1826명이다. 일반 학생들과는 다르게 시각장애 학생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이고, 따라서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대체 교과서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시각장애 학생은 시력에 장애를 갖고 있어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서책형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 교과서를 시각장애 학생의 필요에 맞춰 별도로 제작해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교과서를 ‘대체 교과서(alternative textbook)’라고 한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대체 교과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아마 점자 교과서일 것이다. 또 각 교과서 출판사들에서는 저시력 학생들을 위한 확대 교과서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점자 교과서나 확대 교과서와 같은 서책형 대체 교과서와 함께 음성자료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김정호

(주)엑스비전테크놀로지
시각장애 학생용 대체
교과서 발행·공급사업
PM

음성자료는 DAISY(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라는 국제 표준 규격에 따라 제작된 e북 형태의 교과서이다. 확대 교과서를 사용하기에는 시력이 충분하지 않고 점자 역시 아직 잘 읽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하다. 사실 시각장애는 진행성인 경우가 많아서 확대 교과서를 사용하던 저시력 학생들이 시력이 나빠짐에 따라 확대 교과서를 이용하기 어려워졌을 때도 음성자료를 사용하게 된다.

시각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모두에서 공부하고 있다. 과거에는 시각장애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 부모님 곁을 떠나 주요 도시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녀야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장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 학생과 같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형태를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이라고 하며,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일반화된 장애 학생 교육 방식이다.

통합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용할 대체 교과서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부분의 시각장애 학생들이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대체 교과서로 제작해야 할 교과서 종류가 제한적이었다. 또 대부분 점자 교과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늘어나고, 검인정제도 확대로 학교마다 서로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어 지난 10년 동안 대체 교과서로 제작되는 교과서의 종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 가을, 포항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전맹 시각장애 학생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집 근처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던 이 학생은 대부분의 교과서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학교에서 백방으로 점자 교과서를 구해 주기 위해 애를 썼지만 해당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 중 몇 종만이 점자 교과서로 제작되어 있었고 나머지 교과서를 점자책으로 만들어 줄 제작기관이 없었던 것이다. 점자 자료는 점역사가 일일이 편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교과서는 어문 텍스트뿐만 아니라 교과목에 따라 점자로 옮겨야 하는 데이터가 다양하고 그림자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작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점자 교과서를 제작해 줄 기관을 학교 측에서 찾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다행히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교육부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대체 교과서를 제작해 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모든 시각장애 학생이 교과서만큼은 제때에 지급받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말부터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대체 교과서 제작 사업을 위탁받아 일해 오고 있다. 대체 교과서는 자료 특성상 일반 교과서가 출판된 이후에 제작을 시작할 수 있다. 당연히 개학 때까지 시간을 맞춰 제작을 완료하고 인쇄·제본을 거쳐 각 신청 학교로 교과서를 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특히 올해처럼 새로운 교과서가 개발되어 처음 사용하게 되는 해에는 살인적인 제작 일정을 소화해야만 한다. 게다가 대체 교과서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이 이루어지면 최대한 신속하게 보급되어야 한다. 이 점이 일반 교과서 보급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학기 중에도 전학을 가게 되어 새로운 교과서를 필요로 할 수 있고, 드물지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기 초가 되어서야 대체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급하게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실 시각장애가 없는 학생들은 교과서 이외에도 다양한 학습 참고서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 참고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교과서가 학교 공부를 하기 위한 주된 매체이다. 따라서 교과서가 제때에 제공되지 못하면 시각장애 학생은 학교 진도를 따라가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대체 교과서는 시각장애 선생님들께도 중요한 교수자료이다. 현재 500여 분의 시각장애 교사들이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다.

매년 250여 개 학교에 시각장애 학생용 대체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다. 학교마다 사용하는 교과서도 다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완 자료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과거와 달리 정말 자율화되었음을 실감하곤 한다. 물론 대체 교과서 발행·공급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서로 특색 있게 편집되고 제작된 교과서들을 시각장애 학생과 선생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에 맞춰 제작해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함께 하게 된다.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마다 대체 교과서를 만들어 늦지 않게 신청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출판사들의 지원과 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정말 감사하게도 교과서 발행사들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용 대체 교과서 제작을 위해

교과서 PDF 파일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만약 출판사의 도움이 없다면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다시 입력하고 오탈자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물론 그 결과 학기가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시각장애 학생들은 겨우 교과서를 받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출판사들에서 선뜻 교과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대체 교과서 제작 기간을 1/3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대체 교과서 제작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매우 큰 힘이 되고 있다. 과거에 점역사에 의해 한 글자씩 입력해 제작되던 점자 교과서는 점역 소프트웨어를 통해 교과서 내용을 점자로 빠르고 정확하게 점역하여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확대 교과서 역시 디지털 이미징 기술을 활용하면 보다 나은 품질의 확대 자료를 자동화해 제작할 수 있다. 특히 음성자료는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힘입어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 발음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읽어 주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움까지 갖추게 되어 점자와 확대 자료 모두를 사용하기 어려운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6년 정도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체 교과서를 제작해 오면서 한 사회가 선진화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좋은 기준이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점을 자주 실감하곤 한다. 대체 교과서 지원 제도와 제작 기술을 견학하러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나 독일, 스웨덴 등을 가 보았지만 우리의 지원 시스템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아직도 시각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들보다 교과서를 늦게 받고 있다. 제작이 일반 교과서보다 늦게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양한 기술을 좀 더 잘 적용하면 그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많이 연구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발전이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빛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보면서 대체 교과서 제작자로서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적용해 나갈 결심이다. 우리 시각장애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말이다. 

필자 소개

시각장애학생용 대체교과서·학습콘텐츠 기획자이며, 대체교과서 발행·공급 사업 과제 책임을 맡고 있다.